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비판적 점검과 발전적 방향 모색

—수능 평가의 본질 회복을 향하여—

류 수 열*

국문초록

목적 : 이 글은 현행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한 비판적 점검을 통하여 수능 국어가 더욱 바람직한 평가 도구로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 이를 위하여 수능 출제에 개입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길항 관계를 점검의 기준으로 삼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학 능력 간의 길항, 사고력과 지식 간의 길항, 선다형 문항의 미덕과 한계 간의 길항이 그것이다. **결과 :** 수능이 사고력 시험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화법과 작문 문항이 배제되어야 한다. ② 설득적 텍스트가 독서 지문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③ 문법 지식을 직접 묻는 문항이 배제되어야 한다. ④ 과도한 시간을 요구하는 문항이 배제되어야 한다. ⑤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는 문항이 출제되어야 한다. ⑥ 문학의 상투적인 문항이 배제되어야 한다. **결론 :**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수능 시험의 위상에 대한 정책적 판단, 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수렴 등의 절차에서 나타날 다양한 목소리들 사이의 긴장은 더욱 건강한 국어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수학 능력, 수능 국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고력, 지식, 선다형 문항.

---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http://dx.doi.org/10.15734/koed..121.201912.353

www.kci.go.kr

1. 문제의 발단

2022학년도 수능에서부터 문항의 편제가 달라진다고 한다. 독서와 문학은 공통, '화법과 작문' 및 '언어와 매체'는 선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가시적인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국어과의 각 영역 단위 혹은 문항 단위에서 엿볼 수 있는 수능 국어 시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능의 역사가 25년을 헤아리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에 제도적, 정책적 모색의 결과로 안착되었던 수능 국어(언어)[1]의 영역 단위의 구도와 문항 단위의 정당성을 출제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변인들 사이의 길항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능 국어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평가라는 시험의 본질적 위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애국가>를 지문으로 하여 수능 문항이 출제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기로 한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제1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후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제2절>

1) 이하에서 현재의 수능을 가리킬 때에는 '국어 영역', 수능의 역사를 아울러 가리킬 때는 '국어(언어) 영역'으로 표시한다.

www.kci.go.kr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제3절>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제4절>

—「애국가」

*공활(空豁) : 텅 비고 매우 넓음.

1. 윗글의 표현상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미상 연결되는 어절을 서로 도치하여 운율감을 조절하고 있다.
② 각각의 절 마지막에 동일한 음운을 배치하여 운율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③ 각각의 절에서 유사한 음절수로 구절을 구성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시적 소재 앞에 지시 관형사를 덧붙여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⑤ 시적 청자와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그에게 말을 건네는 청유형의 어투를 구사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느님'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② <제2절>에서는 우리의 기상이 '바람서리'와 같은 외부의 시련에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③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구름' 없는 '가을 하늘'에 뜬 '밝은 달'처럼 매우 밝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제4절>에서는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개인적 감정 상태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⑤ <후렴>에서는 '대한'을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삼천리'로 표현하여 남한과 북한의 구별이 없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영원히'라는 의미를 지닌 구절로서 고려속요 <정석가>에서 그 발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② ㉡ : '지조' 혹은 '절개'를 표상하는 소재로서 윤선도의 <오우가>에서 유사한 인격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③ ㉢ :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서 정몽주의 <단심가>에서도 나오는 표현이다.

(…이하 생략…)

www.kci.go.kr

1번 문항은 시를 지문으로 하는 세트에서 거의 예외 없이 출제되는 유형이다. 2번 문항은 내용의 사실적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문항으로서 거의 예외 없이 출제되는 유형의 문항이다. 항상적이고 그래서 상투적인 문항들이다.

문제적인 문항은 3번이다. 전체가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세트라면 3번 문항은 <보기>에서 외재적 정보를 주면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적절하지 않은 것은?'과 같은 문항이 나왔을 법하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는 외재적 정보는 없다. 답지에는 <정석가>니 <오우가>니 하는 다른 작품들의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만일 이 문항이 낯익어 보인다면 그것은 학교의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접했을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낯설어 보인다면 수능 국어(언어) 영역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2)]

교내의 정기고사에서는 허용되는데 수능에서는 배제되는 문항이 있다는 것은, 수능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구별되는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위상은 수능의 본래적 취지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수능은 '수학(修學) 능력', 정확하게는 '대학 수학 능력'의 약칭이다. 요컨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일종의 창고로 삼아 그중에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선별하여 구성되는 것이 수능 문항이다.[3)]

이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로 하자. 만일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

2) 그마저도 최근에는 수능형 출제라는 대세에 따라 내신을 산출하기 위한 정기고사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항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3)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시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sub/info.do?m=0101&s =suneung((2019. 10. 29)

www.kci.go.kr

생들을 수험생으로 삼아 이 시험지를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했다고 해 보자. 1, 2번 문항에 대해서는 그 수험생들도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번 문항은 스스로 판단해서 맞힐 수 있는 문항이 아니다. 맞혔다고 해도 그것은 행운의 산물이지 능력이 발휘된 해결이 아니다. 3번 유형의 문항이 수능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능 국어 영역이 평가 도구로서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수능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많지만, 수능이 지니는 대사회적 파급력이나 개별 문항의 정오에 대한 시비를 제외하면 적어도 수능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어(언어) 영역이 수능 역사 26년을 경과하면서 이런 취지를 견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자 과목임을 부인하는 목소리는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국어 영역이 디테일 면에서 과연 수학 능력 측정이라는 본래적 임무를 원활하게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점검은 무엇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평가는 타당한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학습자의 생애 주기 면에서 수능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평가 요소 면에서 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 평가 형식 면에서 선택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접근의 통로로 취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국어의 각 영역별 차이를 적극적으로 전제하면서 논의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www.kci.go.kr

2. 수능 국어 출제에 개입되는 변인들의 길항 관계

2.1.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길항

최초로 시행된 1994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의 세 영역만 있었다. '대학 수학 능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이었고 핵심적인 과목이었다. 그런데 1999학년도에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2001학년도에는 제2외국어가, 2005학년도에는 직업탐구가 수능 과목으로 추가되면서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과목과 일치되는 정도는 점점 높아져 왔다. 명분은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였다. 수능 과목에서 배제되는 과목은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소외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4)]

더불어 수능의 역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어과와 관련된 영역의 명칭이 초창기에는 '언어'였다가 이후 2014학년도부터 '국어'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영역 명칭의 변화에는 수능 시험의 범위 및 성격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치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언어 영역의 문항이 적성 시험의 성격에 가깝다면, 국어 영역의 문항은 학업 성취도 시험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이도영, 2016 : 111-115).

이 지점에서 수능의 역사를 간략하게 되돌아본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 시험의 범위가 일치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성찰을 이

4)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깃발 아래 사고력 평가를 방향성으로 설정했던 수능이 고등학교 교육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몰고 가는 역설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에는 그 정상성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함정이 있다. 실제로 사실적 지식 위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학력고사 문항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사고력 중심의 수능 국어 문항이 고등학교 국어 교실의 풍경을 바꾸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실현되기도 했었다. 현재는 초창기 세 영역을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탐구 과목들이 과연 사고력 평가라는 취지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평가 문항의 유형은 사고력을 추구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적 혹은 개념적 지식이 없이는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문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www.kci.go.kr

끌어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수능이 그야말로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자. 거의 모든 과목들이 추가되었음에도 여전히 수능에서 배제되고 있는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의 존재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들 과목들은 교양의 확충이라는 미덕은 가지지만, 이 분야 전공자들을 제외하면 수학 능력 그 자체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던 초창기의 수능 정신이야말로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명분에 가장 부합하는 구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우리는 수능의 초심을 점점 잃어 왔던 셈이다.[5)]

또 하나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실 중의 하나는 대학 진학이 고등학교 교육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 6).

>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5) 이러한 평가가 초창기 수능 언어 영역의 모든 것을 옹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문항 단위에서 보면 현재적 관점에서 온전히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현재의 수능으로 변화해 오면서 개별 문항들이 더욱 세련되고 함량이 풍부해지는 경향이 있다.

www.kci.go.kr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고등학교 교육이 오로지 대학 입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마도 상급 학교, 곧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넌지시 드러내는 목표는 전문의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와 1)항의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고등학교 교육 목표 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를 우리가 망각하곤 하는 것은 이 목표의 그림자는 워낙 짙고 그 구심력은 절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문의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2)항의 '창의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3)항의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 4)항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와 나눔의 실천'과 같은 항목들은 주변부의 자리로 밀려나 있거나 사장된 채로 있다가 특정한 사회적 이슈와 함께 고등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상황에서만 부상할 따름이다.

이런 점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에서 다룬 모든 것들이 수능에서 그대로 포섭될 필요는 없다. 과목 단위에서 음악과 미술, 체육 등이 배제되는 것도, 수능 초창기에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의 세 영역만으로 구성되었던 역사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고 포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국어 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 하나를 던진다. 고등학교 국어 과목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은 과연 모두 수능에서 출제를 해야 하는가? 달리 말해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은 평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가 가능한 능력이 있고 평가 불가능한 능력이 있다. 더욱이 5지 택일이라고 하는 선다형 문항[6]이라는 조건에서라면,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럴 수 없는 능력의 구별은 더욱 확연해진다.

화법 영역과 작문 역역을 보기로 하자. 지면의 제한이 있으니 굳이 개별적인 사례를 들고 올 필요도 없겠다. 지문이 주어지고 이에 따른 2~4개의

6) 엄밀한 의미에서 '선다형(multiple choice)'은 실상에 어긋난다. 대신 '(오지)택일형'이 적확할 것이다. 다만 관례를 존중하여 '선다형'을 쓰기로 한다.

www.kci.go.kr

하위 문항이 제시된다. 형식은 독서 영역의 문항과 다르지 않다. 오직 차이가 있다면 대발문에서 독서 영역과는 달리 '다음 글을 읽고'라는 단서가 없다는 점뿐이다. 읽기 능력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는 포즈일 것이다. 결국 주어진 정보들을 조회하면서 정답지를 선택해 가는 과정은 독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화법 능력이나 작문 능력이 아니라 독서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셈이다. 사고력 측정이라는 대의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역별 특수성을 살리는 문항은 실현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었을까 한다. 중요도, 완성도, 난이도, 참신성, 지속성을 지표로 하여 '화법과 작문' 평가 문항에 대한 양호도 조사도 있지만(권태현・김승현, 2019), 정작 이런 문항이 실제적인 화법 능력과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효한가 하는 점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7)]

화법 영역과 작문 영역의 문항이 과목 단위에서 교육과정과의 일치를 추구한 결과로 수능 시험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데 비해, 독서 영역은 반대로 성취기준 단위에서 교육과정과의 불일치가 문제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지문에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배타적으로 선택되어 자리를 잡는다. 정서 표현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문학 영역에서 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설득적인 성격의 글이 배제되는 것은 불구적이다. 독서 영역 교육과정에 밀착된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화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 시대에 따른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나타난 글, 지역별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글[8)] 등이 다양하게 제시

7) 수능 선다형 문항의 점수와 실제적인 수행형 문항의 점수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수행형 문항에 대한 선다형 문항의 예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장성민・민병곤, 2016).

8) 2009 개정 시기(2012. 12 고시)의 교육과정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을 참고하였다.
(22)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23)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달랐음을 알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며 글을 읽는다.
(24) 지역별 문화의 특성이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글을 읽는다.

www.kci.go.kr

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는 않다. 특정한 관점에 의해 지배당하는 글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나타난 글과 지역별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글은 출제자가 장악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대신 설명적인 글은 대학 수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접하게 되는 개론서류나 전공 서적의 문체에 가깝다. 그리고 그 지문은 지성사의 어느 한 지점에서 화제와 정보를 추출해 놓았으므로 대학생으로서 읽어볼 만한 가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니 무미건조하더라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 위주의 지문은 출제자로서도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는 5지 택일형 객관식 문항으로 소화할 수 있는 독서 능력의 편폭을 스스로 좁히는 편법이다. 그리고 비록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학습자 혹은 수험생들이 얻을 수 있는 독서 경험의 편폭을 좁히는 편향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결과적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배신이다.

요컨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묘한 역리가 보인다. 교육과정과의 일치를 추구함으로써 객관식 문항으로 측정 불가한 화법과 작문 영역의 문항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반면에, 사회적 시비에 대한 불안을 피하고 출제의 편의성을 추구한 결과 포용 가능한 다양한 성격의 가치 있는 글들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2.2. 사고력과 지식 간의 길항

국어교육의 성격에 관한 담론은 도구 교과, 사고 교과, 문화 교과 등으로 대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국어 능력의 정체, 곧 국어 학습을 통해 획득하는 능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쟁점에 대한 응답에 다름 아니다. 대학 수학 능력이라는 대의를 고려해 보면 국어 영역이 수능

www.kci.go.kr

에서 주요 교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수학(修學)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국어 능력이 대학에서의 수학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논리에 기반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어교육은 사고 교과로서의 위상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해서 그것이 정보의 기계적 전달과 수용이라는 단순 기능에만 국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사고 작용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문제 해결과정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작용이면서 추론의 요소와 직관・창의의 요소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계적인 정신 활동이라면(허경철 외 4인, 1991), 사고 없는 의사소통은 지극히 단순한 기능에 불과할 것이다.

수능 국어 영역에서 추구하는 사고력 평가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적 사고는 물론이고 추리와 추론, 상상, 비판에 이르는 사고의 다양한 편폭을 아우르고자 한다. 주어진 지문의 정보만으로, 경우에 따라 <보기>를 통해 주어지는 정보에만 기반하여 정오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국어 영역이 초창기 수능의 정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바로 이러한 출제 경향을 근거로 삼고 있다.[9] 그러다 보니 국어 영역에서 배제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다. 어떤 경우에도 지식이 배제된 교과목은 성립될 수 없거니와, 국어 과목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개념적 지식의 목록을 거느리고 있는 문법 영역마저도 다양한 정보를 주면서 탐구를 하는 형식의 문항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없지는 않다. 문법 영역의 문항 일부가 여기에 해

9) '단순 암기에 의해 답할 수 있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통해 문제를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며 해결하는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며,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출제한다.'(11쪽)는 출제 원칙이 명시된 것은 2004년으로서 언어 영역이라는 명칭이 지속되던 때였다(<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언어 영역>(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www.kci.go.kr

당되는바, 오직 지식에 의존하여 해결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정공법적 문항들이다.

14.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② ⓑ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③ ⓒ의 '별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습 활동]

겹문장은 홑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홑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료〉	〈조건〉
• 날씨가 춥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물을 마셨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① ㉠: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② ㉡: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③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④ ㉣: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⑤ ㉤: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www.kci.go.kr

각각 2019학년도 본수와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선택한 문항이다. 2019학년도 본수 14번 문항은 문장 성분의 개념과 그 종류, 필수 성분,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개념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해결 가능한 문항이고,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의 15번 문항 또한 겹문장의 종류와 안은문장의 종류를 개념적 지식으로 갖추고 있어야 접근 가능한 문항이다. 전체적인 문제 풀이 과정에서 사고력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고력이 개입될 계기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여타의 문항들이 최소한 어떤 개념을 알려주는 정보를 준 후에 이를 바탕으로 답지의 정오를 조회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런 유형의 문항들은 형식적으로는 탐구 활동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문법적 지식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지니는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문법적 지식의 소유 여부를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또 교양인 혹은 지성인으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지식의 목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고력 평가라는 수학 능력 시험의 취지를 잣대로 접근한다면 그 미덕은 무색해진다. 도대체 무슨 사고력이 작동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언어 영역이 아니라 국어 영역이므로 적성 시험이 아니라 학업 성취도 시험의 문항으로서 성립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5개 문항 중에서 오직 이런 식으로 지식의 소유 여부를 정공법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 1~2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도 돌출적인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다시 국어과 교육과정을 오롯이 담는 국어 영역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회의를 담고 있다. 수능이 만일 학업 성취도 검사의 성격과 적성 검사의 성격을 동시적으로 중첩해 놓는 듯한 구도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법 문항이 학업 성취도 검사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매우 심각한 불균형을 스스로 자백하는 결과를

www.kci.go.kr

낳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균형을 취하기로 한다면 서론에서 예시로 제시한 바 <애국가>에 딸린 3번 문항과 같이 문학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화법과 작문에서도 지식에 대한 기억력에 의존하는 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를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초창기 수능 언어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나 수능의 가치를 위해서나 더 옳은 선택이 될 것이다.[10)]

이와는 달리 사고력이 작동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식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의 존재도 문제적이다. 한때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2019학년도 본수 31번 문항이 이에 해당된다. 문항 하나의 규모를 기준으로 수능 역사상 거의 최대라 할 만하고 답지를 포함한 정보도 그만큼 많다. 본질적인 문제점은 배경 지식이 충분한 수험생들이라면 답지만 보고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이라는 점이다. 이는 읽기에 동반되는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공계 학생들이 인문학 계열이나 사회 과학 계열의 글을 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과학이나 기술 분야는 교양 수준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나 문과 계열 학생들의 접근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출제자가 일상 언어가 과학의 지식을 정확하게 표상하지 못한다는 학문적 신념을 가지게 마련인 과학 분야 지문의 특성(주세형・남가영, 2015 : 321), 즉 일상 언어와의 간극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과학 지문의 특성이 이 문항에서도 그대로 전이되어 재현된 셈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내용을 지문으로 삼아 출제하는 상황에서는 지문에 대한 보편적 가독성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설정

10) 최근 수능의 창시자로 알려진 박도순 교수는 언론을 통해 수능 폐지를 역설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능이 결국 지식 평가로 변질했다는 점에 있었다. 그는 초창기의 국어와 수리 영역이 사고력 평가를 추구하는 수능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점수로 줄 세우는 ‘학력고사’식 수능이 교육 망쳤다”, 중앙일보, 2018. 12. 10. https://news.joins.com(2019. 10. 29)

www.kci.go.kr

하는 것이 요긴해 보인다.

물론 이 문항도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능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속도 테스트가 아니라 역량 테스트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는 시험에서라면 이런 식의 문항은 기본적으로 배제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국어 지문에서 과학이나 기술 분야의 내용을 다뤄 온 것은 비교적 오래된 전통이었다. 그것은 학문 분야별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결과였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과학이나 기술 분야의 문항 세트가 국어 영역의 변별도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최고난도 문항을 과학이나 기술 분야 지문에서 출제를 해 오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다. 변별력을 위해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 최고난도 문항을 심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우연에 의한 정답 선택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사고력 평가라는 취지는 무색하게 될 것이다.

2.3. 선다형 평가 문항의 미덕과 한계 간의 길항

선다형 문항이 가지는 미덕은 많다. 문항이 지니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문항의 모호성을 배제할 수 있고, 주어진 시험 시간에 많은 문항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넓은 영역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검사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성태제, 2002 : 180-181). 채점이 쉽고, 주관을 배제할 수 있어서 객관성이 높다든지, 문항의 답지를 조금만 수정해도 쉽게 원하는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미덕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미덕 외에 국어과의 특수성 층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하나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지문으로 주어진 글은 이곡(李穀, 1298~1351)의 <차마설(借馬

www.kci.go.kr

說)>로서, 제6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국어』에 실린 이래로 현재까지도 여러 국어과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글이다.

> (…전략…)
>
>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어느 하나도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무엇이 있다고 할 것인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迷惑)된 일이 아니겠는가?
>
>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 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어버리는 판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
> 맹자(孟子)도 말하기를 "오래도록 빌려 쓰고서 돌려주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
>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이 글은 글쓴이 자신이 말을 빌려 탄 경험을 권력 혹은 인간관계에 유추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고 과정을 보여준다. '대상(Object) 자체의 분석-관계(Relation)의 검토-의미(Meaning)의 발견', 곧 ORM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다(김대행, 1995 : 262-287). 주제는 대략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니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 정도의 경고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글을 읽어가다 보면 ㉠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독부'나 '고신'이라는 어휘가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라면 사전을 찾으면 금방 해결될 수

www.kci.go.kr

있다. 그러나 그 뜻이 각각 '포악한 정치를 하여 국민에게 외면을 당한 군주'와 '임금에게 버림받은 신하'임을 확인한다고 해도 그 맥락적 의미가 순순히 다가오지는 않는다. 글의 거의 마지막 대목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는 상당한 함축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문장이나 단락은 충분히 평가 문항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때 교내에서 실시되는 정기고사에서라면 가령 '㉠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라는 서술형 문항의 문제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아는 학습자는 알고 모르는 학습자는 영원히 모르게 된다. 이에 만일 다음과 같은 선다형 문항으로 출제했다고 가정해 보자.

3. ㉠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권세는 남에게 빌려 쓰는 것이므로 돌려줄 때를 잘 알아야 한다.
② 남에게 빌려서 쓰는 권세는 오래 가지 못하므로 스스로 권세를 만들어야 한다.
③ 남에게 권세를 빌려 쓰는 대신 자신도 남에게 권세를 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
④ 남에게 빌린 권세를 돌려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⑤ 남에게 빌린 권세는 언젠가는 돌려줄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모호한 구절이어서 깊이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함축적 의미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후보가 될 만한 몇몇 뜻풀이를 제시하면 그중에서 문맥상 가장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답지가 선택될 것이다. 꼼꼼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오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오독의 결과도 답지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정답으로 설정된 답지는 ④이다.

www.kci.go.kr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바탕으로서 위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돌려주는 것은 곧 그 권세를 잘못 부린다는 뜻이거나 그래서 그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권세를 되돌려주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11] 이런 선다형 문제라면 틀리고 나서도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지문을 읽는 보람은 물론이고 문항을 푸는 보람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서술형 문항을 통해서는 이러한 보람을 얻도록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선다형 문항은 잘만 만들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미덕을 발휘할 수 있다. 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촉진하는 비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단순한 사실, 개념, 용어에 대한 기억력을 평가하는 데 제격이지만, 문항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키면 추론 능력, 판단력, 비판력을 측정할 수도 있다. 즉 문항 형식이 갖는 융통성이나 신축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답지를 5개 정도로 하면 추측에 의한 요인은 거의 무시할 수 있으며,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쯤 포함되면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불식할 수 있다. 선발 시험인 수능에서는 좀처럼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여기에 더하여 답지의 반응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반응 형태를 분석하면 학습자 개인에 대한 진단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우리가 선다형 문항의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 평가의 현장에서 이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덕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 논란의 가능성으로 인해 깊이 있는 해석의 여지가 차단당한다는 문제점이다.[12] 예시 문항의 문두에서 '가

11) 이에 대해서 또 다른 깊이 있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필자의 안목으로서는 이와 같은 해석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12) 이와는 별개로 선다형 평가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 문항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20%의 확률로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문항의 요구 사항에 대해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경우에라도 정답을 찾지 못하면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또 하나 자주 지적되고 비판되는 문제점은 피험자들이 답으로 반응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은 알 수 없고 반응의 결과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www.kci.go.kr

장'을 넣어 최선답형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해당 구절의 의미를 답지 ④가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지, 혹은 나머지 답지와 무관하게 그 함축적 의미를 가장 깊이 있게 파악한 결과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유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학습자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어느 참고서에서는 이 작품의 내용을 '무소유, 무욕, 안분지족의 삶', '소유에의 집착 경계', '소유에 맹목적으로 집착되지 않는 삶이 참되고 바른 삶의 자세임을 제시'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13] 이와 같은 예시 문항이 ④번 답지를 정답으로 상정한 채로 출제되었다고 하면 맹렬한 이의 제기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 만일 위에 제시된 예시 문항에서 정답으로 제시된 ④번 답지의 정당성이 승인된다면, 위의 참고서식 설명은 매우 피상적인, 그래서 매우 위험한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출제진의 입장에서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출제를 하려면 개인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그에 못지않은 맹렬한 이의 제기에 못지않은 만용을 부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선답형이 가지는 이와 같은 한계는 특히 문학 영역의 문항에서 자주 일어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의 부정형 문두로 문항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 난점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이런 번거로운 상황을 감안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수준에서 이의 제기의 여지는 차단하고 깊이 있는 해석의 여지는 닫아 둔 채로 정답지를 다듬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의 함량이 높은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문항이 그 지문을 읽는 보람을 느끼도록 하지 못한다면, 문항의 가치도, 출제의 보람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차마설>의 해석 문제는 그나마 전후 맥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정답지를 구성할 수 있지만, 시나 소설에서 인간의 마음이나 정서를 파악하는 데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서

13) 이와 같은 설명은 대개의 참고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특정 참고서에 대한 비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www.kci.go.kr

그런 위험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완판본 계열의 <심청전>이나 창본 <심청가>에서 심청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장 승상댁 부인이 뱃사람들을 따라 떠나는 심청을 만류하는 대목이 있다.

> "㉠네 이 천하 무상헌 사람아! 네가 이게 웬 일이냐? 나는 너를 딸로 여기는디 너는 그리 무정허냐? 효성은 지극허나 너의 부친을 어이 허리! 공양미 삼백 석을 내가 이제 줄 터이니 선인 불러 내어주고, 망령 의사(意思)를 두지 마라."

만일 ㉠에 담긴 장 승상댁 부인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심청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층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면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서 부녀간 이별을 하는 상황이 되기까지 더욱 친절하게 자상한 보살핌을 베풀지 못한 데 대한 자탄이라 할 수 있다. 친딸처럼 여기면서 보살펴 주었던 심청이 죽은 후에 친히 강가에 나가 제사를 지내는 부인의 정성을 고려해 보면 이를 자탄이라 해도 대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심청에 대한 서운함'을 버리고 '자신에 대한 자탄'을 중심으로 구성된 답지를 제시했다면 이 또한 수많은 이의 제기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다른 답지를 모두 확연한 F값으로 구성하고 최선답형 문두로 돌파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보기>를 활용한 탐구형 문항으로 설계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닫거나 열어 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선다형 문항 그 자체의 한계가 뚜렷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의 제기가 없는 문항이 미덕이 되는 출제 관행으로 인해 깊이 있는 해석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한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력적인 오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한은 최선답형만이 아니라 정답형이나 합답형, 부정형의 문항에서도 두루 나타날 수 있다.

www.kci.go.kr

문학 문항 중에서 또 하나 문제적인 것은 거의 상투적으로 제시되는 표현상의 특성과 서술상의 특성을 평가 요소로 내세우는 문항들이다. 표현상의 특성은 주로 시의 수사법적 자질, 서술상의 특성은 주로 소설의 수사론적 자질을 답지의 정보로 포함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항은 사실상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는 시력 검사이자 지식 검사에 가깝다. 답지에 '설의적 표현'이나 '편집자적 논평'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요소가 있는지를 세세히 찾으며 그 긴 지문을 읽어야 한다. 이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이들 요소들이 비평적 분석의 결과인 전문적 용어이고 따라서 이런 문항을 해결하는 것은 기억의 인출을 요구한다는 점이다(김대행, 2018 : 19-20). 심지어 한 시험지 안에서 고전과 현대 문학 작품이 있으므로 거의 동일한 평가 요소를 거느리는 문항을 두 개씩이나 출제하기도 한다.[14]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선다형 문항의 장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선다형 문항과의 궁합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고력을 촉진하는 비계 역할을 하는 선다형 문항의 미덕을 살리는 길은 아닐 것이다.

3. 수능 국어 영역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살핀 바대로 수능 국어 영역의 문항들은 출제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운동하고 작용한 결과물이다. 그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다른 변인들을 일단 배제한 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수학능력 사이, 사고력과 지식 사이, 선다형 문항의 미덕과 한계 사이의 길항을 중심으로 국어 영역의 현행 출제 관행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 결과

14) 수능 문학 문항의 양호도 조사 결과 표현상의 특성이나 서술상의 특성을 평가 요소로 삼고 있는 문항들은 특정 구절이나 장면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나 속담을 고르는 문항과 함께 대체로 양호도 하위로 평정된 바도 있다. 남민우 · 민재원 · 이인화(2016) 참조.

www.kci.go.kr

를 서술하였다. 이제 그 요지와 함께 발전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대학 수학 능력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과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독서 문항과 변별적인 지점을 확보하지 못하는 화법과 작문 문항을 출제하는 데 대한 회의적 의견을 앞세웠다. 과격한 주장으로 간주되겠지만 국어 교육의 영토 분쟁 이전에 평가의 본질에 대한 천착과 숙고가 더 종요로운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화법과 작문 문항은 선다형 문항과 조화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이에 따라 진정한 화법 능력과 작문 능력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수능 국어 출제에서는 배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화법과 작문이 수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오히려 교실에서의 화법과 작문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이다.[15]

더불어 독서 문항에서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 위주의 텍스트만을 지문으로 제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에서는 화법 및 작문과는 반대로 교육과정과 더 밀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만일 독서 영역에서 교육과정과의 일치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듯이 지성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동서양 고금의 명문들을 포함한 설득적 텍스트들이 대거 수능의 지문으로 포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때 이른바 국역 고전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지문으로 출제를 했던 국어(언어) 영역의 역사가 좋은 참조가 되어 줄 것이다.[16]

사고력과 지식 사이의 길항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는 사고력이 개입될

15)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미국 SAT의 '에세이 쓰기'를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해 수능 국어의 작문 평가 문항의 구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최숙기, 2018)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고의 논의와는 차원이 다른 장기적인 과제로 남지만, 적어도 작문 능력을 선다형 문항이 아닌 직접 평가의 방법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6) 국역 고전에는 <붕당론>(이익, 1994). <원목>(정약용, 1995), <사변록>(박세당, 1996), <북한의>(박제가, 2003) 등 실학자들의 현실비판적인 글들과 조선 후기 문학가의 글, 태조실록에 실린 상소문(2008) 등이 포함된다.

www.kci.go.kr

여지가 없는 이른바 돌직구식의 문법 문제가 수능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형의 문항으로 변환시키는 데는 또 다른 공력이 요구되지만 수능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감수해야 할 자질이 될 것이다. 정오답 시비가 없는 것이 출제의 유일한 미덕이 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향은 '문법'의 개념역을 확대하여 '아는 것'을 넘어 '활용하는 것', 즉 지식의 범위를 넘어 '국어의 맥락적 쓰임을 파악하고' '국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수준(김규훈, 2019 : 22-23)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독서 문항, 특히 과학 분야의 지문에서 자주 산견되는 고난도 문항은 과도한 지적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속도 테스트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록 사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난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역변별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지문과 문항의 난도를 조절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또한 사고력 측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이 선다형 문항으로서 지니는 미덕이 있는가 하면 이에 못지않게 한계도 엄연히 도사리고 있음을 고려하여, 문학 문항에서 깊이 있는 해석 결과를 답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였다. 수능에서 선택되는 문학 작품이 그 자체로 읽는 보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의 제기의 위험이 다소 있더라도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답지로 배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다형 문항의 장점을 보여주지만 시력 검사에 가까운 지식 문항, 가령 표현상의 특성과 서술상의 특성을 평가 요소로 내세우는 문항들도 과감하게 덜어낼 필요도 있겠다.[17]

17) 수능 국어의 문학 영역에서 선다형 문항의 한계를 근거로 객관식 서답형 평가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민희, 2018)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선다형 문항의 틀 내에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본고의 취지와는 매우 결이 다르며,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커다란 과제이다.

www.kci.go.kr

뒤따르는 문제들이 없을 리 없다. 국어교육의 영토가 엄연히 5~6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영역을 제외한다고 할 경우, 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파행을 근거로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반대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설득적 텍스트를 포함하는 독서 지문의 다양화에도 난점이 있다. 번역의 문제가 개입될 것이고, 그 역사성에 대한 평가도 변수로 작동될 것이다. 사고력 중심의 문항 출제, 깊이 있는 해석을 동반하는 문항 출제는 출제진의 수고가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제 시간의 확보와 출제 역량의 보완을 요구한다.

수능 국어의 발전적 방향이 실현되는 과정은 결국 정치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수능 시험의 위상에 대한 정책적 판단, 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수렴, 국어교육계 내부의 영역 간 안배 등등의 국면에서 이질적인 목소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을 조절하는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능 문항 출제는 언제나 출제 환경의 한계와 벌이는 투쟁이었고, 문항은 그 한계 안에서 수고로운 과정을 거친 최선의 과실이었다. 마침 2022학년도 수능이 새로운 편제로 구성된다고 하니, 정책적 한계 내에서라도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한계를 고백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비판한 수능 문항의 한계와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대안들은 하나 하나가 별도의 정치한 논의를 거쳐야 할 만큼 함량이 높은 주제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조망 수준에 그친 이 글은 충분히 타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교한 논리를 갖추지 못했다. 다만 학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 때문에 불편해하는 화제를 꺼낸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학문 공동체 내부의 생산적 논의를 통해 수능다운 수능 문항을 만들어가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권태현・김승현(2019),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평가 문항의 양호도 조사 연구,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교육학회) 제71권, 161-194. Kwon, T. H. & S. H. Kim (2019), A Research on the Quality of 'Speech and Writing' Evaluation Items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71, 161-194. doi : 10.26589/jockle..71.201909.161.

김규훈(2019), 수능 문법 평가 문항에 대한 비판적 분석, <우리말글>(우리말글학회) 제82집, 1-27. Kim, K. H. (2019), Critical Analysis of Grammar Test Items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Focused on Reviewing Validity of Items by Specification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82, 1-27.

김대행(1995), 옛날의 글씨기와 사고의 틀,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 : 서울대출판부, 262-287. Kim, D. H. (1995), *Gugeogyogwahaguijipyeong(The Horizons of Korean Language Subjectology)*, Seoul : SNU Press, 262-287.

김대행(2018), <시와 언어문화>, 서울 : 역락. Kim, D. H. (2018), *Siwaeoneomunhwa (Poetry and Language Culture)*, Seoul : Youkrack.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세종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2015), *Cho・jungdeunghaggyo gyoyuggwajeongchonglon(Overvie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Sejong : Ministry of Education.

남민우・민재원・이인화(2016), 수능 문학 영역 평가 문항의 양호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문학교육학>(한국문학교육학회) 제51권, 9-48. Nam, M. W., J. W., Min & I. W., Lee (2016), A Research on the Qualities of Literary Evaluation Items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nd the Refining Way of Developing Items, *Korean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51, 9-48.

성태제(2002), <현대교육평가>, 서울 : 학지사. Seong T. J. (2002), *Educational Evaluation*, Seoul : Hakjisa.

이도영(2016), 수능으로 국어교육 되돌아보기, <국어교육학연구>(국어교육학회) 제

www.kci.go.kr

51호, 107-127. Lee D. Y. (2016), Look Back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SAT,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1, 107-127. doi : 10.20880/kler.2016.51.2.107.

이민희(2018), 대학입학시험 문학능력 평가의 비판적 검토 및 과제, <국어교육연구>(국어교육학회(since 1969)) 제66호, 271-310. Lee M. H. (2018), Critical Review and Assignment to Literacy Assessment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s,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since 1969) 66, 271-310. doi : 10.17247/jklle.2018..66.271.

장성민 · 민병곤(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작문 영역 평가의 타당성 검토-선다형 점수와 수행형 점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작문연구>(한국작문학회) 제29권, 163-209. Chang S. M. & B. G. Min (2016), A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 CSAT Indirect Writing Assessment, *The Research in Writing* 29, 163-209.

주세형 · 남가영(2015), 「국어과 읽기 평가 맥락에서 과학 지문의 특성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권 3호(통권 38호), 313-342. Joo S. H. & G. Y. Nam (2015), A Study on Scientific Texts used in Korean Reading Assessment-Focused on Texts in CSAT(Language Art),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8(3), 313-342.

최숙기(2018), 미국 SAT 작문 평가 문항 분석을 통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의 작문 평가 개선 방안 탐색, <작문연구>(한국작문학회) 제36권, 107-144. Choi S. K.(2018), Exploring Improvement Methods for Writing Assessment of 2022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e Research in Writing* 36, 107-144. doi : 10.31565/korrow.2018..36.0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언어 영역>,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2004), *Daehagsuhagneunglyeogsiheomchulje maenyueol-eoneoyeongyeog(Manual for Making Problem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Language Area)*, Seoul : KICE.

허경철 · 김홍원, · 임선하 · 김명숙 · 양미경(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연구>Ⅴ,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Heo G. C., H. W. Kim, S. H. Lim, M. S. Kim & M. G. Yang (1991), *Sagoryeogsinjangeuluwihan programgaebalyeongu(Research of Program Development for Improving Thinking Ability)* Ⅴ, Seoul : KEDI.

중앙일보(2018), "점수로 줄 세우는 '학력고사'식 수능이 교육 망쳤다", https://news.joins.com(2019. 10. 29)

www.kci.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목적", http://www.kice.re.kr(2019. 10. 29)

www.kci.go.kr

Abstract

Critical Examination About CSAT Korean Language and Its Developmental Directions

—Toward the Recovery of the Nature of the CSAT Evaluation—

Ryu, Suyeol

Purpose :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in which the Subject of Korean language should go as a more favorable assessment tool through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urrent Korean language area i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Methods :** For this purpose, the check was based on the competition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variables intervening in the CSAT problem making. The competition between the high school curriculum and college scholastic ability, between thinking ability and knowledge, between the virtues and limitations of multiple-choice questions. **Results :** The items necessary for a thinking ability test are summarized as follows ; ① The section of listening and speaking, writing must be excluded. ② Persuasive text should be stored in reading section. ③ Questions that directly ask knowledge of grammar must be eliminated. ④ Questions that require excessive time should be eliminated in reading section. ⑤ Questions that require deep interpretation should be given in literature section. ⑥ Regular questions must be eliminated at literature section. **Conclusion :** It is predictable that there will be opposition to these claims. However, the tension between the various voices that will emerge in the process of policy judgment on the status of the CSAT test and the convergence of social demands for language edu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healthier ecosyste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 College Scholastic Ability, Korean language area is CSAT, high school curriculum, Thinking Ability, Knowledge, multiple-choice questions

류수열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rusual@hanyang.ac.kr
접수일자 : 2019. 10. 30. / **심사일자 :** 2019. 12. 02. / **게재 확정 일자 :** 2019. 12. 10.

www.kci.go.kr